

# 허씨론 조기등판... '安風', 신당창당 넘어 정계개편 '태풍' 될까

안철수 4·24 서울 노원병 보선 출마 선언

## 파장 어디까지 ... 여야, 상황 예의주시

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4·24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전격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'안철수 바람'이 정치권의 중요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.

빨라도 10월 재보선일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안 전 교수가 새 정부 출범 후 첫 재보선에 출마한 것은 여야의 역학구도와 정치권의 새 판짜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.

특히 대선 패배 이후 아직까지 당내 혁신 및 쇄신에 대한 뾰족한 방안 등을 마련하지 못한 채 주류·비주류의 힘겨루기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 등 야권의 지각변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.

◇직접 출마 왜? = 안 전 교수의 조기 등판은 정치활동 재개를 위한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평가된다.

향간에는 안 전 교수가 측근들의 선거운동을 측면 지원하거나 연구소를 설립해 의과에서 보복을 넓혀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. 그러나 안 전 교수가 재보선 직접 출마가

드름 뽐아든 것은 정치활동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. 종래 신중하고도 조용한 행보를 벗어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.

안 전 교수의 정치 전면 등장은 단 순히 안 전 교수 개인의 원내 진출 여부 이상의 파급력을 정치권에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.

박근혜 정부가 출범 일주일이 지났음에도, 여야 간 힘겨루기로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지 못한 것은 물론 새 정부의 각료 인선조차 이뤄지지 않아 최장 '지각출범' 정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.

기성 정치권이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반복하는 상황이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안 전 교수에게 쏠릴 개연성이 있다는 뜻이다.

더욱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 각종 개혁과제를 포함한 공약의 60%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안철수 바람이 거셀 경우 개혁 드라이브가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정국의

축이 안 전 교수를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.

◇정계개편 바람 불까 = 안 전 교수의 4월 재보선 도전은 신당 창당 등 정치 세력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. 안 전 교수의 재보선 출마는 민주당을 곤혹스러운 처지로 내몰 가능성이 있다. 대선 패배 이후 내부 전열이 정비되기도 전에 안 전 교수의 등장은 당의 원심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.

당장 당내에서는 안 전 교수와의 재보선 연대·협력을 놓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. 민주당도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안 전 교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도, 거리를 두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.

안 전 교수가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신당 창당에 나선다면 정치권의 새 판짜기를 위한 정계개편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칠 개연성이 크다.

특히 민주당은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당내 친노(친노무현)·주류와 비주류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안 전 교수와의 연대·협력 수위를 놓고도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.

◇여야, 상황 예의주시 = 정치권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안 전 교수의 출마 소식에 말을 아끼며 상황을 예



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측근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3일 국회 정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안 전 교수가 오는 4월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"고 밝혔다. 회견을 마친 송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의주시하는 분위기다. 새누리당 민천주 대변인은 "아직 정해진 당의 공식 입장이 없다"며 "4월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"고 말했다.

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"안 전 교수는 야권단일화를 거두고 대선을 함께 치른 분이다. 대선 후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고 본다"면서도 향후 관계설정 등에 대해 "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"고 신중

한 태도를 보였다.

민주당 문재인 전 대선 후보는 이날 안 전 교수의 출마 소식을 들은 뒤 "환영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"고 말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. 문 전 후보는 또 "이번 재보선에 야권이 힘을 합해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다"는 뜻을 피력했다.

반면,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"안 전 교수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 뜻을 수렴하고자 정치에 복귀하는 것은 환영한

다"면서 "그러나 정치 복귀의 첫 선택지가 노원 병이라는 것은 매우 유감"이라고 밝혔다.

이 대변인은 "노원병은 노 공동대표가 당선 8개월 만에 사법부에 의해 짓밟힌 곳"이라며 "진보정의당은 사법부의 부당 관철에 맞서 유권자와 국민의 뜻에 따라 재발 개혁과 사법 개혁을 제대로 실현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"고 말했다.

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학교설립 59주년 (1954~2013)

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

광신대학교

광신대학교

입학문의 학부 (062)605-1114

대학원 (062)605-1115

## 野 노회찬 부인·정동영, 與 허준영·이준석·안대희 거론

노원병 출마 거론자 누구

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3일 4·24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표를 던짐에 따라 여야 간 '대진표'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한 노원병은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는 3곳 가운데 유일할 수도권 지역구로 치열한 접전예상되는 가운데 유력 대권주자였던 안 전 교수의 출마로 여야 간 섀넌이 복잡해진 형국이다.

앞서 진보정의당은 노회찬 대표의 부인으로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지선 씨의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.

노원병은 야당세가 강한 지역이지만, 현 구도에서는 안 전 교수를 중심으로 '1대 다(多)' 구도가 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과를 예단하

기 어렵다.

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안 전 교수로 야권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.

새누리당에서는 현 당협위원장인 허준영 전 경찰청장장관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.

허 전 청장은 지난해 4·11 총선에서 야권 단일후보였던 노회찬 대표에게 패배한 이후로 지역위원장을 맡아 표심을 다져온 것으로 알려졌다. 노원병에서 한때 1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위원도 새누리당의 '짧은 파'로서 수도권 짧은층 표심을 공략할 카드로 꼽힌다. 당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대선캠프에서 정치쇄신 특위 위원장을 맡아 정치쇄신 공약을 성안한 안대희 전 대법관의 이름도 비중있게 나오고 있다.

민주당에서는 4·11 총선에서 노회찬 대표에게 야권 단일후보를 양보한 이동섭 지역위원장이 강력하게 출마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해진다.

정동영 상임고문과 박용진 대변인 등도 출마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. 정 상임고문은 5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출마하고자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도는 등 정치적으로 재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, 진보신당 부대표를 지낸 박 대변인도 민주당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어는 정도 각인시킨 상태다.

다만,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해 대선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직을 양보한 안 전 교수가 당선되도록 후보를 내지 말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.

/임동욱기자 tuim@kwangju.co.kr

## 광주·전남 정치권 벌써부터 '안철수 신당' 촉각

참여자 명단까지 나들

안철수 전 교수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와 함께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여 지역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.

이는 지난 18대 대선 과정 중 광주·전남 민심은 그 어느 지역보다 안 전

교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안 전 교수가 정치활동을 재개할 경우 호남이 주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.

특히 민주당이 지난해 4·11 총선과 대선에서 잇달아 패배한 뒤 당내 혁신과 쇄신에 대한 비전 제시 없이 여전히 주류와 비주류 간의 '세력다툼'

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민심이 안 전 교수 쪽으로 급격히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

이러한 지역민심 이반이 빠르게 전개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역 지방의원 및 지방의원 출마자들이 대거 '안철수 신당' 행을 택할 수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.

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"지방의원들을 중심으로 신당 창당론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실제로 신당 창당에 주목하고 있는 인사들도 상당하다"며 "안 전 교수가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어 신당을 창당할 안 교수 솔림 현상이 커질 것"이라고 전망했다.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벌써 안철수 신당 참여자 명단이 나돌고 있다는 이야기도 속속 흘러나오고 있다.

일부 구대·비리 정치인들을 제외하고 전문가 그룹 및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이다.

또한, 지난 대선에서 안 전 교수를 지지했던 지역포럼도 여전히 안 전 교수 측과 꾸준히 연락을 취하고 있어 안 전 교수 지지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.

따라서 안철수 전 교수의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에 따른 정계복귀로 인해 민주당의 텃밭이자 심장부인 광주지역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.

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TRUE PRODUCTS, REAL PEOPLE

MILLET

아웃도어의 진심-밀레

엄홍길 대장과 함께 대한민국을 오르십시오!

밀레 기술고문

엄홍길

밀레 「한국명산 16좌 원정대」 모집

엄홍길 대장과 함께 한국명산 16좌를 오르십시오. 도전하는 자만이 산의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.

▶ 참가신청 : 광주/전라지역 밀레 백화점 및 대리점 또는 아래 참가 신청가능 매장에서 접수 (자세한 사항은 매장 혹은 www.millet.co.kr 참조)

▶ 참가특전 : 참여하신 모든 분께 밀레 기법품 증정

▶ 주최 : MILLET / 주관 : Mtour / 후원 : 61 광주일보사

열한번째 산행 3월 22일 (금) / 두문산 \*일정 및 동선소스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

참가 신청가능 매장

백화점 롯데광주점 062-221-1686 현대광주점 062-510-7738 아울렛 롯데아울렛광주수원점 062-616-2221 익산밀레아울렛점 063-838-9293 밀레광주아울렛점 062-385-5555 NC순천 061-726-5417 직영점

광주직영점 062-266-8848 대리점 밀레전주호계점 063-272-3668 밀레순천수송점 063-445-4747 밀레전북남원점 063-626-7889 밀레전주중앙점 063-255-0789 밀레전주종화산점 063-229-7676 밀레익산밀레점 063-838-9293 밀레전북김제점 063-544-7651 밀레익산중앙점 063-852-7447 밀레전주순천점 063-276-3031 밀레광주직영점 062-266-8848 밀레목포하림점 061-282-8523 밀레광주용봉점 062-529-6200 밀레전남광양점 061-793-2744 밀레광주진달래점 062-674-5888 밀레광주첨단점 062-973-7775 밀레전남여수점 061-666-1921 밀레전남순천점 061-745-3068 밀레광주무등산점 062-225-2121 밀레광양합성점 061-761-7524 밀레전남여천점 061-691-6565 밀레순천중앙점 061-752-3380 밀레전남영광점 061-352-7070 밀레해남점 061-535-5425

WWW.MILLET.CO.KR MILLET

고객문의 021-306-7033 • 대리점개설문의 021-3153-3203 MOUNTAIN BY EXPERIENCE

빛日만평 - 김종두

정부조직법

공자왈

맹자왈

답답하고 한심하지고..